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12 - 33

Oct. 11, 2015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는 전편 것을 소개해 주고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따서, 지난 주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이번 주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창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슨 댓가를 치루어도 다시 화해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는 둘째번 이야기를 나누는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그 새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과 화해하시고 우리들을 에덴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이 나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 본토를 떠나라. 너의 친족과 가족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 11 장 8 절에 보며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지만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되, 행함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지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줄 덧붙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신뢰.. 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한 사람이 산행을 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전경을 즐기며 산행하다가 낭떠러지에 미끌어 떨어졌습니다. 겨우 풀줄기를 하나 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30 미터, 아래로는 50 미터,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태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누구 위에 없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다.” “좀 도와주실래요?” “물론이지” “그럼 속히 도와주세요.” “잡고 있는 것 놓아라.” “뭐라고요?” “소리쳤습니다. 놓으면 떨어져 죽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놓아라 그러면 내가 잡아줄게.” “아 참... 거기 위에 딴 사람 없어요?”

신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 참 굉장합니다. “와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오라 그러시는데.. 가라 하시는데 안 가고. 하라 하고 하는 안 하고.. 나누라고 하는 데 안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용서 하라고 하는데 용서 안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아브람은 신뢰하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뼈격거리며 나아갑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나아갑니다.

먼저, 사라가 좀 성급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아기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심산으로 하갈을 남편 아브람과 동거하게

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 살이 되고 사라가 99 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터 테스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정한가? 신뢰가 진정한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요. 그 때, 이삭이 15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겠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가능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으면 부활시키실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동을 먹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대신 양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새 민족을 탄생시키십니다. 이삭은 레베카와 결혼하고, 쌍둥이를 얻지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 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새 민족은 점점 커져 갑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시고 열정적인 사랑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 이야기 때 마다, 우리는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두번째 이야기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22 장 2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요한 복음 3 장 16 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간 모리아 땅이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땅입니다.

두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듣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새 민족 건설을 하는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다.”(이사야 55:8) 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더 들어가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 집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사라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마엘은 없었습니다. 사라가 성급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내노라할 정도의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조바심이 생깁니다. 좀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승승장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시죠? 구름이 머물면 머물러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됩니다.

고야마 교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수이신데, 이분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천천히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40 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직선 거리가 120 마일이라고 합니다. 차로 2 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120 마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40 년동안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야마 교수의 주장은, 1년마다 3 마일씩 간격이라는 거지요. 1년에 3 마일씩 20년을 가면 120 마일이 되지요. 3 마일 빨리 걸으면 한시간에 갑니다. 여기 교회에서 휘어필드 기차역, 새로 생긴 기차역까지 정확히 3 마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3마일을 일년동안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천천히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느림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느림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사역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두번째 받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평범한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과 사래는 지극히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초대받을 만한 부부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기운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자격미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난 교육을 덜 받았어. 난 못 생겼어. 난 영어를 못해. 난 돈이 없어. 나는 바빠. 나는 경험이 없어. 난, 나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는 말을 더듬는 병신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내놓았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헌팅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원이 자금 횡령을 했습니다. 제 전임자 떠난 후, 몇몇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40도 채 되지 않은 제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잠을 못 이루면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는 중,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사무실이 제단 앞, 왼쪽에 있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힘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합니다.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움직이면서 제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니. 이게 네 교회는? 이 교회는 나의 것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그 날,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에, 아펜젤러 선교사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뉴저지 메디슨의 드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이었던 아펜젤러는 나이 27살에 한반도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배재학당을 세우고, 그 외에 독립 운동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세상가운데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아멘.